

▣ 정책동향

정책동향 2016년 쌀 격리물량 25만 톤 잠정 결정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18.)

- [농식품부, 2016년산 쌀에 대한 격리물량 25만 톤 잠정 결정, 10.18.]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 4,202천 톤(9.15~22.조사) 기준,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 톤 10월 말부터 격리 실시*, 실수확량 발표 시점(통계청, 11.15.)에 격리물량 최종 확정
 - ※ 전년도 시장격리 시점(2015.11.12.)보다 보름정도 빠른 것으로, 정부의 쌀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

농촌지역 고령자 식생활·건강개선 사업 추진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21.)

- [농식품부, 농촌지역 고령자 식생활·건강개선 사업 실시, 10.21.] 농식품부, 관계기관·기업체 등과 협업, 농촌지역 50개 마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식생활·건강교육, 운동강습, 공동급식 제공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(10월 말~12월, 약 10주간)
 - (추진 배경) 농촌지역은 식생활 관련 정보부족, 식품에 대한 접근성 열악(식품사막) 등으로 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서 식품미보장이 높게 조사*
 - ※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(2014. 국민건강통계) : (2013) 7.7% → (2014) 8.3 (65세 이상 8.4)
 - ※ (도시/농촌) 8.2% / 9.1%
 - (추진 목적) 사전예방, 일상생활 속 실천의 식생활·영양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 - (농식품부) 고령자 맞춤형 식단·간식 레시피 및 교육교재 개발, 전문 강사 육성 및 실습 위주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(월 1회), 마을단위 공동급식 형태의 '마을밥상' 제공(주 2회) 등
 - (지역보건소)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(틀니관리, 근력강화 등) 요령 및 영양, 심혈관, 치매예방 등 통합 건강교육 지원
 - (국민건강보험공단) 운동 강습, 신체기능 측정, 우울증검사, 건강캠페인 등 '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' 지원
 - (기업체 등 민간단체) 홉플러스 e파란재단, 유동골뱅이, (주)풀무원, 한국마사회, (사)한국낙농육우협회, 농협 등 기부금과 농식품 현물 지원

Vol. 43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6. 10. 24.

■ 정책동향

2016년 쌀 격리물량 25만 톤 잠정 결정 등

■ 해외단신 & 국내단신

농촌 여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

■ 연구지원

2016년 9월 농축산물 수입가격 동향 등

■ 현안분석

환경상품협정 논의 동향

농식품부, 「무허가축사 개선방안」 수립·시행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19.)

- [농식품부,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*등 “무허가축사 개선방안” 수립·시행, 10.19.] △매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한 지자체 점검 및 적법화 우수사례 발표** 위크숍 11월 추진, △12월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***
 - ※ 적법화 대상: 60,190호(2018년 20,384호, 2019년 4,312호, 2024년 35,494호)
 - ※※ 적법화 우수농가 발굴하여 축산단체 및 지자체 전파
 - ※※※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장관상장(10점) 포상 및 축산관련사업 인센티브 부여
- (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) 사육규모 소 500㎡ 이상(71두), 돼지 600㎡ 이상(760두), 닭·오리 1,000㎡(20천수) 이상으로 2018.3.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,384호
- (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) 소 400㎡ 이상(57두)-500㎡ 미만(71두), 돼지 400㎡ 이상(506두)-600㎡ 미만(760두), 닭·오리 600㎡ 이상(12천 수)-1,000㎡미만(20천 수)으로 2019.3.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,312호
- (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) 소돼지 400㎡ 미만(57두/506두), 닭·오리 600㎡ 미만(12천 수)의 소규모 농가는 2024.3.24일까지 적법화 완료

수해, 기름 등에 대비한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편성

자료 : 국민안전처(2016.10.18.)

- [국민안전처,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 사업계획 수립, 10.8.] 1,003개소에 1조 2,692억 원 투입,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
 - ※ 최근 10년 동안 예방사업 예산 4.1배 확대(2006년 4,019억 원 → 2015년 1조 6,328억 원) 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결과 재산피해가 과거 30년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(30년 연평균 8,195억 원 → 10년 연평균 4,831억 원)하는 등의 효과

〈2017년 재해예방사업(안): 5개 사업, 총 1,003개소, 1조 2,692억 원〉

- (재해위험개선지구) 211개소 5,314억 원,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설치
- (우수저류시설) 32개소 1,401억 원, 도심지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
- (소하천) 506개소 4,221억 원,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소하천 정비
- (재해위험저수지) 81개소 355억 원,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
- (급경사지붕괴위험) 173개소 1,401억 원,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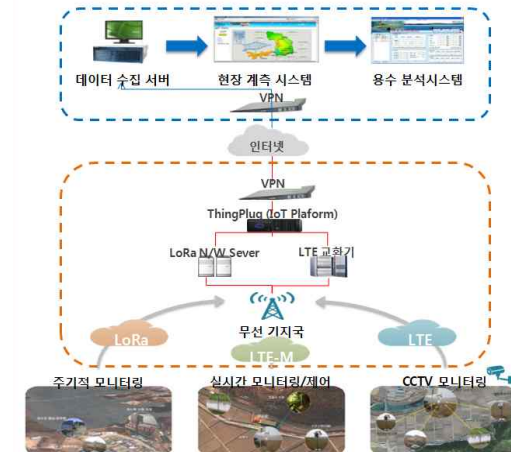
녹색기후기금,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 승인

자료 :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환경부·농림축산식품부·외교부(2016.10.15.)

- [녹색기후기금(GCF: Green Climate Fund) 제14차 이사회 개최, 10.12-14.]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모델이 반영된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: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)의 ‘**지속가능 에너지 금융사업(SEFF: Sustainable Energy Financing Facility)***’ 승인
 - ※ EBRD가 지역금융기관에 신용한도(credit line)를 제공하여 중소기업,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, 신재생에너지 관련 간접대출(on-lending)을 지원, 개도국 지역금융기관 및 대출수혜자 맞춤형 사업 발굴·준비, 신기술 홍보, 역량강화 등도 지원하는 사업
- (주요 내용) 이번 사업은 그동안 승인된 GCF 사업 중 최대 규모(총 14.2억 달러, CGF 3.8억 달러 지원), 최다국가(10개국) 대상 사업으로, 한국의 1) 「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」, 2) 「친환경에너지타운」, 3) 「스마트팜 모델」이 사업 분야에 포함
 - ※ 타지키스탄, 몽골, 몰도바, 세르비아, 이집트, 요르단, 모로코, 튀니지, 아르메니아, 조지아
- (기대 효과)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개도국에 본격적으로 확산·보급되는 계기 마련

「스마트팜 사업모델」

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



〈스마트팜 사업 개요〉

- (개별) 온실축사 등 농업시설에 ICT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 기술, LED 등 보광 기술, 기계공학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이전이후 단계까지 혁신을 이룩하는 농장
- (농업생산 전후 단계로 다양화) 기후영농 형태 등 상이한 현지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, 개도국의 시설 농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스마트팜 확산

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신청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19.)

- [농식품부,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(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*) 사업 신청 개시]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**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****하기 위해 **2016.10.20.~11.30.** 까지(42일간) 사업 신청
 - (사업목적) △**유기질비료지원**...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·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·지속가능한 농업 추진, △**토양개량제지원**...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·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
 - (지원내용) △**유기질비료지원**...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, △**토양개량제지원**...규산, 석회
 - (신청대상) **농업경영체(농업인 및 농업법인)**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

크라우드펀딩, 농식품 기업 투자유치 증가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18.)

- [최근 크라우드펀딩*, 농식품 창업초기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이용] 6월 말부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전용관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이후 **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농식품 기업의 투자 유치 사례 증가****
 - ※ 대중(crowd)으로부터 자금을 조달(funding)한다는 뜻으로서,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들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
 - ※※ 2016.10. 현재 총 17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완료, 증권형(투자금액에 따라 기업 주식을 획득하게 되며,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딩 목표금액의 80% 이상 유치 시 증권발행) 3개 기업 포함 1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
 - (향후 계획) △연말까지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발굴 지속, △희망기업에 한해 펀딩 참가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예정, △농식품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 (10.28.,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)하여 제도 소개와 1:1 상담 등 진행

농촌진흥청, 「TOP 5 융복합 프로젝트」 출범

자료 : 농촌진흥청(2016.10.19.)

- [농촌진흥청, 「TOP 5 융복합 프로젝트*」 출범식 개최, 10.19.] 융복합을 통한 **농산업 신규 가치 창조 및 지속성장**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
 - ※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내·외부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해(농업R&D를 통해) **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쌀 소비 촉진 등 최근 현안문제 해결**

〈「TOP 5 융복합 프로젝트」 핵심목표와 주요 연구개발〉

- (1. 밀가루 대체 **쌀가루 산업 활성화**)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가루에 주목해 쌀가루 전용 품종, 쌀가루 대량유통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분기 개발을 통해 가공용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쌀의 구조적 재고 문제 해결
- (2. 스마트팜 ICT 기기 **표준화 및 국산화**) 농업분야 제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 진입에 따라 정밀농업,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 표준화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 기술 확보보급
- (3. **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**) 고령화·1인 가구·여가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은 소비자의 고급화 욕구에 맞춰 국내 최초 DIY 사료, 곤충 및 쌀 이용 가능성 사료를 개발해 국내 사료시장의 70% 이상을 점유한 수입 사료에 대응하면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
- (4. **발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**) 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, 재배양식 표준화 및 농기계 개발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6차 산업화 모델 확산을 통해 발농업 산업 활성화
- (5. **곤충 이용 식품 및 의약품 개발**) 곤충산업은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(부가가치율: 2015) 26.3% → (2017) 28)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변신을 위해 식품 소재화, 화장품의약 바이오신소재 물질 개발

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) 제4차 협상결과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6.10.16.)

- [한-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*(SECA) 제4차 협상 개최, 10.10.~14., 서울] 상품, 서비스,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양허협상 본격 진행
 - ※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정(FTA)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, 이에 양측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(SECA: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)라는 명칭에 합의(내용은 FTA와 동일)
 - (주요 내용) △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(offer)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, △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*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감대 형성
 - ※ **양국 교역액(억 달러):** (2006) 3.7 → (2010) 8.9 → (2014) 11.5 → (2015) 9
 - ※ **수출: (한국)**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(섬유) / **(에콰도르)** 원유, 새우, **과실류**
 - (향후 계획) △서비스, 정부조달 양허협상의 경우 향후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콰도르측과 협의 지속, △상호교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촉진반 구성에 합의, 제1차 실무협의(working group) 개최(2016.11.) 예정

해외단신 농촌 여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

☐ 농촌 여성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진실

- [대상국가] 세계
- [자료출처] Thomson Reuters 재단
- 10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**국제 농촌 여성의 날(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)**임. 개도국 경제 부문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해(myth)와 고정 관념이 남아 있음.
- **“여성은 세계 식량의 60~80%를 생산함.”**
 - 농업 생산 통계에서 여성 노동력 비중은 과소평가되고 있음.
 -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기는 어렵고,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영농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측을 못함.
- **“여성은 전 세계 토지 중 1%만을 소유하고 있음.”**
 -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가부장적 풍토가 남아 있어 여성들이 땅을 구입하거나 상속 받지 못하고 있음.
 - ‘소유권’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, 관련된 통계자료도 매우 부족함. 여성의 토지 소유권을 과소추정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.
- **“여성은 보다 훌륭한 환경 지킴이임.”**
 - 기존에 하던 활동(땀감 모으기 등)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퍼져 있음.
 - 토지 소유권, 정부와 부족 등 때문에 자연 자원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.

☐ 정책적 함의

- 「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(2016-2020)」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**문제 의식을 되짚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**가 있음.

국내단신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(2016~2020)

☐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(2016~2020)

- [대상국가] 한국
- [자료출처] 농림축산식품부(2016.10.14.)
- [농식품부, 여성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, 10.14.]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,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및 그간의 정책 추진 실적 보고, 발전방향을 논의함.
 - (추진 목적) 농가인구 중 여성 비중은 약 51%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**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**하기 위함.
- **여성농업인육성법(2001.12.)**에 따라 **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**과 매년 이를 구체화한 **실행계획** 추진해 왔으며, 올해 제4차 기본계획(2016-2020)과 2016년 시행계획에 따라 **5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** 중임.
 - (분야 1.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) 2016.9월 기준 여성농업인 11,446명이 농업경영체 DB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국민연금 가입(2016.9. 기준 19.2만 명, 전체 가입 농업인의 49.6%)과 보험료 지원
 - (분야 2.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)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지속 확대,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5개 운영 중, 연말까지 여성농업인 교육관리 방안도 마련
 - (분야 3.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) 2020년까지 농촌체험마을, 지역개발 등 30% 참여 목표(현재 11.6%), 지역 여성 성공사례를 교육에 활용
 - (분야 4. 복지·문화 서비스 제고) 보육시설 없는 읍·면 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(2016년 33개소), 주말아이돌봄 운영(2016년 19개소)
 - (분야 5.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) 이주여성의 농업 인력 육성 정책 추진 중, 현장의 여성농업인과 1: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(2016년 3개 과정, 2,500명)

☐ 향후 추진 계획

- 농촌 여성이 농촌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중요 역할 담당, 기존 여성농업인정책 재점검하고 **현장 애로 반영한 보완정책** 마련해 **2017년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에 반영**

연구지원 2016년 9월 농축산물 수입가격 현황

자료 : 관세청(2016.10.20.)

수입가격지수 현황

- [2016년 9월 농축산물 수입가격지수] 92.2(2010.1월=100.0기준), 전월대비 2.6%↑, 전년 동월대비 12.3%↓
 - (농산물) 76.6, 전월 대비 7.9%↑, 전년 동월대비 16.7%↓*
 - ※ 양념채소류·일반채소류·곡물류·과일류·견과류·농산물 가공제품은 전년 동월대비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 하락
 - (축산물*) 133.4, 전월대비 0.6%↓, 전년 동월대비 9.3%↓*
 - ※ 소고기(13.8%↓)·돼지고기(3.1%↓)·닭고기(31.0%↓) 및 축산물 가공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 하락
 - ※ (품목별) △소고기...호주(48.8%)·미국(42.9%), △돼지고기...미국(23.6%)·스페인(18.7%)·독일(18.5%), △닭고기...브라질(86.7%)로부터 수입이 큰 비중 차지
- [수입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] 수입 국가 전환, 날씨 등의 요인에 따른 현지 생산량 변화, 전년 동월대비 환율의 차이

주요 품목별 수입가격 현황

- [마늘(신선, 냉장_무탈피)] 4,140원/kg, 전월대비 3.4%↑, 전년 동월대비 132.0%↑
- [고추류(냉동)] 763원/kg, 전월대비 2.5%↓, 전년 동월대비 2.9%↓
- [양배추(신선, 냉장)] 390원/kg, 전월대비 1.2%↓, 전년 동월대비 48.0%↓
- [제분용 밀] 273원/kg, 전월대비 1.4%↓, 전년 동월대비 22.4%↓
- [바나나(신선, 건조)] 1,361원/kg, 전월대비 0.2%↑, 전년 동월대비 2.5%↑
- [호두(탈각)] 7,807원/kg, 전월대비 2.4%↑, 전년 동월대비 44.3%↓
- [김치] 653원/kg, 전월대비 11.4%↑, 전년 동월대비 10.0%↓
- [소고기] 8,018원/kg, 전월대비 0.9%↓, 전년 동월대비 13.8%↓
- [돼지고기] 3,242원/kg, 전월대비 0.2%↓, 전년 동월대비 3.1%↓
- [닭고기] 2,189원/kg, 전월대비 4.7%↓, 전년 동월대비 31.0%↓

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(2016.10.20.)

개요

- [통계청, 「2016년 외국인고용조사」 결과 발표, 10.20.]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 조사
 - ※ 2016.5.17.~5.30. 기간에 전국의 외국인 1만 명을 대상으로 1주간(2016.5.8.~5.14.)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

주요 내용

- [국내 상주 외국인] 1,425천 명, 전년대비 3.7%↑
- [경제활동인구] 1,005천 명, 전년대비 1.9%↑
 - (경제활동참가율) 70.5%, 전년대비 1.3%p↓
- [취업자] 962천 명(남자 638, 여자 324), 전년대비 2.6%↑
 - (체류자격별) 비전문취업(261천 명, 27.1%) > 방문취업(221, 23.0) > 재외동포(199, 20.7) > 영주(88, 9.2) 순
 - (국적별) 한국계 중국(441천 명, 45.9%) > 베트남(72, 7.4) > 비한국계 중국(64, 6.6) > 북미(45, 4.7) 순
 - (연령별) 30-39세(281천 명, 29.2%) > 15-29세(256, 26.6) > 40-49세(188, 19.5) > 50-59세(173, 18.0) 순
 - (산업별) 광·제조업(437천 명, 45.4%) > 도소매 및 숙박·음식점업(190, 19.7) >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187, 19.4) > 건설업(85, 8.8) > 농업* (19, 5.1) 순
 - ※ 전년대비 20.4%↑
 - (직업별) 기능원·기계조작 및 조립(375천 명, 39.0%) > 단순노무(305, 31.7) > 서비스·판매(121, 12.6) > 관리자·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(104, 10.8) 순
 - (종사자 지위별) 상용근로자(577천 명, 60.0%) > 임시·일용근로자(342, 35.6) > 비임금근로자(43, 4.5) 순
- [실업자] 4만 3천 명, 전년대비 11.3%↓
- [비경제활동인구] 42만 명, 전년대비 8.3%↑

세계기상기구(WMO), 엘니뇨·라니냐 현황 및 전망

자료 : 기상청(2016.10.19.)

개요

- [세계기상기구(WMO), 엘니뇨·라니냐 현황 및 전망 발표, 10.19.] 올해 겨울 라니냐** 발생 전망
 - ※ 세계기상기구(WMO) 엘니뇨·라니냐 전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과 연구기관의 엘니뇨 예측모델의 결과 취합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약 3개월 주기로 발표됨
 - ※ 라니냐(엘니뇨)의 기준(기상청 기준): 엘니뇨 감시구역(열대 태평양 Niño3.4 지역: 5°S~5°N, 170°W~120°W)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-0.4°C 이하(+0.4°C 이상)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라니냐(엘니뇨)의 시작으로 봄

주요 내용

- 2015/16년 겨울철 최고조로 발달했던 엘니뇨가 지난 5월 종료, 7월부터 엘니뇨 감시구역(Niño3.4, 5° S-5° N, 170° W-120° W)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낮게 지속되면서 약한 라니냐로 발달
 - ※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: 6월 0.0°C, 7월 -0.4°C, 8월 -0.4°C, 9월 -0.5°C (OISSTv2 자료 기준)
 - ※ 10월 초부터 열대 태평양 부근에서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라니냐 발생 가능성 고조
- [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엘니뇨·라니냐 예측모델 및 전문가, 2016/17년 겨울철에 50~60% 확률로 라니냐 발생 전망*]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 반응에 따라 중간급으로 발달할 가능성 내재
 - ※ 엘니뇨·라니냐 예측 모델(총 24개) 중 약 절반 정도가 올 겨울철의 라니냐 강도가 약할 것(엘니뇨감시구역 해수면온도편차 -0.5°C 이하)으로 예측하였으며, 일부는 정상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모델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확한 라니냐 발생 시기 및 강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
- [라니냐 해 겨울철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량 경향성] 라니냐가 발달하는 겨울 전반(11~12월)에 북서태평양 부근에 형성된 저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이 적은 경향이 있음

<라니냐 발달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>

- 1950년 이래 라니냐는 총 13번 발생, 마지막 라니냐는 2011년 8월에 시작되어 2012년 3월에 종료
- 강한 엘니뇨 뒤에 뒤따라 발생한 라니냐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
- ※ 역대 강했던 1972/73년, 1982/83년, 1997/98년 엘니뇨 뒤에 발생한 라니냐가 약 2~3년 동안 지속

현안분석 환경상품협정 논의 동향

※ WTO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, 미국 통상부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미래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환경상품협정(Environmental Goods Agreement, EGA) 논의

- [정의] 환경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조치를 감축하거나 철폐하려는 협정으로 WTO에서 논의되고 있음.
 - 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하면 공기질수질 개선, 폐기물 관리, 에너지 효율성 향상,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[배경 및 경과] 2001년 도하각료선언(Doha Ministerial Declaration) 제31조 제3항에서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음.
 -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에서 54개 환경상품(“Green” goods)의 적용관세를 2015년 말까지 5% 이내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.
 - 2014년 1월 24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음.
 - 2014년 7월 8일 환경상품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15차례 진행한 결과, 품목 리스트를 340여 개로 구체화하였음.
 - ※ 한국,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중국, 유럽연합, 미국, 일본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스위스 등 17개국이 참여(EU는 1개 국가로 간주)하였고, 참여국은 2015년 환경상품 교역량의 86%를 차지함.
- [목적] WTO는 환경상품협정이 무역, 환경, 개발 측면에서 상생(Win-Win-Win)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
 - (무역) 관세와 비관세조치를 감축하면 친환경 기술 이전이 용이
 - (환경) 고품질 환경상품 구입이 쉬워져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 부담 경감
 - (개발) 개발도상국이 발전전략을 실천할 때 환경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

환경상품협정 주요 특징

- [주요 특징] 환경상품협정에서 3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- (1. 관세 완전 철폐 목표) APEC 선정 54개 품목 기반

㉔ 현안분석

- (2. '지속성(living agreement)') 대상 품목 갱신 가능, 비관세 조치 및 서비스 등 다른 부문과 연계 가능성
- (3. 최혜국 원칙(Most-Favored Nation) 적용 가능성) 최소 정족 수(critical mass) 충족 시
- [주요 참여국 입장] 주요 참여국에서 **환경상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**하고 있기 때문에 **환경상품협정 진행에 많은 관심**을 보이고 있음.
 - (EU) 2013년 54개 품목(APEC 논의 품목)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710억 유로, 340억 유로였음. EU에서 지정한 165개 품목으로 확장하면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조 4,600억 유로(EU GDP 중 약 8%), 7,000억 유로임.
 - (미국*) 전 세계 환경상품의 연간 교역액을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. 2013년 미국의 수출액은 1,060억 달러였고, 2009년 이후 매년 8%씩 성장하고 있음.
 - ※ 오바마 대통령도 기후변화대응계획(Climate Action Plan)의 일환으로 환경상품 자유 무역을 강조

□ 환경상품협정 시사점

- **영향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특성을 고려·반영할 필요**가 있음.
 - EU에서는 **지속가능성 영향 평가(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)**를 **경제**(무역 활성화, 투입재 가격 영향 등), **환경**(환경정책 이행 효과 제고,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), **사회**(UN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충족) 등의 **부문에서 실시**하고 있음.

<참고문헌>

- EU Commission. 2016. The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(EGA): Liberalising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. July 2016. <<http://trade.ec.europa.eu/dbdlb/press/index.cfm?id=1116>>
- ICSTD. 2016.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negotiators agree roadmap for conclusion. <<http://www.icsd.org/bridges-news/bicres/news/environmental-goods-agreement-negotiators-agree-roadmap-for-conclusion>>
- USTR.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. <<https://ustr.gov/trade-agreements/other-initiatives/environmental-goods-agreement>>
- Weiss, C. 2016.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(EGA), The Technology-Trade Nexus: A Key Enabling Force for Achieving the SDGs. UNEP Workshop, European Commission, 16 September, 2016.
- WTO. Negotiations on trade and the environment. <https://www.wto.org/english/tratop_e/envir_e/envir_negotiations_e.htm>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소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